

개신교회 찬양인도자의 찬양 사역 경험에 대한 연구

김은영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2. 연구 방법
 - 1) 질적 사례연구
 - 2) 연구참여자
 - 3) 자료수집 방법
 - 4) 자료 분석 방법
3. 연구 결과
 - 1) 찬양 사역의 구조
 - 2) 찬양 사역의 절차
 - 3) 찬양 인도 경험
 - 4) 찬양 사역의 결림돌
4. 나가는 말

개 요

이 연구는 개신교회 중 침례교회 찬양인도자의 찬양 사역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많은 교회가 경배와 찬양을 위한 찬양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찬양 사역자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준비과정, 그리고 중요한 개념 등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신교회 중 연구자가 속한 침례교단 찬양인도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찬양 인도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접근, 그중에서도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활용하였다.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 technique)에 의해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총 여덟 명의 침례교회 찬양인도자이며 주일 예배 출석 인원 1,000명 이상인 교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회의 규모를 조건에 넣은 이유는 찬양팀을 위한 인력과 장비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찬양인도자의 환경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물리적인 제한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 면담으로 각각 한 시간 이상의 인터뷰 이후 추가적인 질문은 전화나 문자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찬양 사역 경험은 네 가지 범주로 탐색하였다. 첫째, 찬양 사역의 구조는 찬양인도자, 찬양팀, 그리고 음향 담당자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찬양 사역의 절차는 선곡과 연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찬양 인도 경험은 회중 찬양에서 찬양팀의 역할과 영향, 그리고 찬양 인도 중 진행어, 그리고 교회음악 전공 여부와 영향, 그리고 성가대와 찬양팀의 협력을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찬양 사역의 걸림돌로서는 시간과 인력의 부족, 음악적 전문성과 훈련, 설교자와 소통,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있다.

논의와 제언으로는 첫째, 찬양 담당자에게 신앙적 기준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음악적 전문성과 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찬양 인도자는 발성과 화성 등을 포함하여 찬양팀을 힘써 훈련하고, 교회에서는 이들의 음악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을 고려하면 좋겠다. 둘째, 음향 담당자는 최선의 예배 음향을 위하여 겸손하게 준비하며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음향 담당자의 능력은 기계를 만지는 기술만이 아니라 음악을 듣고 판별할 수 있는 '좋은 귀'가 필수적이다. 셋째, 선곡을 위해 설교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예배와 찬양에 대한 철학을 나누고 예배를 위해 협이가 필요하다. 담임 목회자, 찬양인도자와 성가대 지휘자를 포함하는 음악

담당자, 그리고 음향 담당자 등의 지속적인 협의는 체계적인 예배에 큰 도움이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된 성도들이 통일되게 응답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회중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응답의 표현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와 바람직한 찬양 사역을 위하여 본 연구가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교회음악, 찬양 인도, 찬양 사역 경험, 교회 음향, 찬양팀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개신교회 중 침례교회 찬양인도자¹⁾의 찬양 사역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현대 많은 교회가 경배와 찬양을 위한 찬양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형태와 수준은 목회자의 철학, 찬양인도자의 성향, 그리고 회중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²⁾ 동영상 플랫폼의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온라인 사역 확대로 전 세계의 찬양인도자는 서로의 찬양 사역 현장을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³⁾ 이렇게 결과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으나 찬양 사역자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준비과정, 그리고 중요한 개념 등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간과하기 쉽다.

예배음악은 예배 전체의 흐름과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찬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찬양은 단순히 설교를 위한 준비나 부수적인 순서가 아니라 찬양 그 자체가 예배요, 신학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것이다.⁴⁾ 이것은 단지 가사의 중요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간 장면을 보면 음악은 그 자체로 육신과 마음, 그리고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⁵⁾ 예배에서 어떤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가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 심지어 위험한 문제이다. 그러나 예배음악을 담당하는 자나 곡의 선정, 준비과정 등에 대한 신학적, 음악적 전문성과 관심은 부족하다. 특히 전문 찬양 사역자가 없는 경우

1) 본 연구에서 '찬양인도자'라 함은 현대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실용음악에서 밴드의 메인 보컬리스트 역할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2) 이를 교인의 취향의 문제로 여기기도 하지만 예배를 음악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해롭다. 안선희, “종교문화적 취향의 문제로서의 열린예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3 (2007), 323. 이상일, “21세기 한국문화와 회중 찬송,” 『장신논단』 37 (2010), 205.

3)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는 공적인 예배로 인정, 시행되고 있다. 김은영, “포스트 코로나 19와 교회음악에 관한 연구 - 온라인 예배에서의 회중 찬송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4 (2019), 210.

4) 이상일, “공적 신앙 형성과 회중찬송,” 『신학과 실천』 58 (2018), 198.

5) 프랭크 겔러 외 / 홍성수 옮김, 『위험에 처한 교회음악』 (서울: 두풍, 1997), 78-97.

선곡이나 가창, 그리고 예배에 부적절한 언행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경배와 찬양은 이제 거의 모든 한국 교회의 예배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찬양 인도와 찬양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찬양인도자를 꿈꾸며 신학과나 교회음악과에 진학하기도 한다. 찬양 인도에 대한 많은 저서가 쏟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찬양인도자 자신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주장이나 제안이고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노하우의 전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⁶⁾ 경배와 찬양 관련한 학술 연구로는 예배학적으로 조명한 경배와 찬양 연구⁷⁾나 워십댄스와 관련한 찬양사역에 대한 연구,⁸⁾ 예배 찬양의 기능과 역할 연구,⁹⁾ 그리고 예배 인도자로서 목회자 교육에 관련한 연구¹⁰⁾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찬양인도자 또는 찬양 사역자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대부분 학위논문이다.¹¹⁾ 찬양인도자에 관한 질적 연구로는 김에스라의 “현대 예배와 찬양인도자에 관한 질적 연구”가 있다.¹²⁾ 김에스라는 예배인도자 세 명 그리고 목회자 세 명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하는 찬양인도자와 회중의 관계, 찬양인도자를 위한 준비, 찬양인도자의 역할, 그리고 현대예배의 특징 등을 알아보았다. 예배인도자의 역할과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시각을 조명한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역 경험에는 접근하지 않았다. 찬양인도자가 예배 현장에서 어떤 곡을 어떻게 사용하며 인도자의 역할과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나 객관적인 실태조사, 분석은 아직

6) 정석찬, 『워십리더』 (서울: 넥서스, 2013), 11-13.

7) 하재승, “찬양과 경배에 대한 개혁주의 예배학적 조명,” 『개혁논총』 18 (2011), 215-248.

8) 하재승,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찬양사역과 워십댄스,” 『개혁논총』 17 (2011), 225-258.

9) 양정식, “현대 찬양경배예배의 이해와 개선점 - 예배찬양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2 (2010), 319-354.

10) 김은희, “한국 신학교육에서 찬송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예배인도자로서 목회자 후보생 찬송 교육을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97 (2021), 143-166.

11) 강성수, “예배에서의 찬양인도자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2022). 정주영, “교회 속 예배 팀과 예배 인도자의 역할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장신대학교, 2018). 황형철, “예배인도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신대학교, 2006).

12) 김에스라, “현대예배와 찬양인도자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음악·문화』 3 (2018), 34-64.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신교회 중 연구자가 속한 침례교단 찬양인도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찬양 인도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접근, 그중에서도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활용하였다. 이는 특정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접근보다 질적 연구접근이 더 적절하며, 찬양 사역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음악 목회적 경험과 소신 등에 초점을 맞추고 공통적인 경험과 함께 사례들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데는 질적 사례연구 접근이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¹³⁾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침례교 찬양인도자들의 사역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방법

1) 질적 사례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침례교 찬양인도자의 사역 현장과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 접근 방식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접근의 하나로서, 연구자는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 또는 경계를 가진 사례들을 탐색하며 다양한 정보원(예를 들어, 관찰, 면접, 시청각 자료, 문서와 보고서 등)들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사례 기술(case description)과 사례 주제(case theme)를 보고한다.¹⁴⁾ 이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을 통하여 참여자의 사역 환경과 찬양

13) 권지성, “침례교 은퇴목회자의 생활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복음과 실천』 60 (2017), 436.

14) 존 W. 크레스웰 / 조홍식 외 3인 옮김,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2015), 125.

사역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고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질적 사례연구 접근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적용하였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 technique)¹⁵⁾에 의해 선정한다. 연구참여자는 침례교회 찬양인도자이며 총 여덟 명이다. 참여자의 선정 기준 및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는 침례교회 중 주일 예배 출석 인원 1,000명 이상인 교회의 찬양인도자이다.¹⁶⁾ 교회의 규모를 조건에 넣은 이유는 규모가 작으면 찬양팀을 위한 인력과 장비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찬양인도자의 환경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인력이나 장비와 같은 물리적인 제한을 배제하기 위해 중형 이상의 교회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현재 연령은 30대~40대이며 침례교단 소속 교회에서 부목사 또는 전도사의 직분을 가진 사역자이다. 대부분 전임 사역자지만 시간제 사역자도 한 명 있다. 교회에서 맡은 역할은 찬양 인도와 더불어서 특정 교구 또는 부서¹⁷⁾를 겸하여 담당하고 있다. 면담 당시의 참여자가 교회에서 찬양인도자로 사역한 기간은 평균 3년이지만 모두 해당 교회 이전에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의 찬양 인도 경력이 있다. 참여자들의 학력은 모두 신학대학원 졸업이며 현재 박사과정 중에 있는 참여자도 한 명 있다. 현 사역과 관련한 참여자들의 전공

15) 의도적 표집은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 기준을 가진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표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판단 표집 방법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비확률적인(nonrandom) 표집 방법으로 배경 이론이나 정해진 연구참여자의 수가 필요하지 않다. Dolores C. Tongco, "Purposive Sampling as a Tool for informant Selection," *Ethnobotany Research and Applications* 5 (2007), 147.

16) 한 교회가 예배당을 여러 곳에 보유한 경우에는 참여자가 사역하고 있는 예배당 한 곳만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17) 부서를 맡은 참여자는 대부분 청년 부서나 30-40대의 젊은 부부 부서를 겸하여 담당하고 있다.

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신학을 전공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 명은 신학과 함께 워십 분야의 교회음악도 전공하였다. 참여자가 사역하는 교회의 위치는 서울·수도권 지역과 대전·충청 지역이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구분	현재 연령	직분	현 교회 경력	관련 전공	교회 소재지
A	30대 초반	목사	6년	신학	대전·충청
B	30대 중반	전도사	2년	음악 목회 ¹⁸⁾	대전·충청
C	40대 중반	목사	2년	음악 목회	대전·충청
D	30대 초반	목사	6년	신학	대전·충청
E	30대 후반	목사	3년	음악 ¹⁹⁾ , 신학	서울·수도권
F	40대 초반	목사	6년	신학	서울·수도권
G	40대 중반	목사	3년	신학	대전·충청
H	30대 초반	전도사	5년	신학	서울·수도권

3)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 면접이다. 우선 침례교단에서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중형 이상의 교회를 선정한 다음 홈페이지 검색과 사적 관계망을 통하여 찬양인도자를 파악, 접촉하였다. 대상자에게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부탁하여 모두 여덟 명의 찬양 사역자를 섭외하였으며 연구자가 참여자의 교회를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²⁰⁾ 심

18) 목회 음악 전공이란 교회음악대학원 혹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음악과 신학을 병합하여 이수하는 전공을 말함.

19) 연구참여자 E는 학부에서 교회실용음악을 전공하였다.

20) 연구참여자 G가 희망하여 연구자의 대학 상담실에서 면접을 시행한 예도 1회 있다.

층 면접은 참여자별로 1회씩 진행하였으며 각 면접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소요되었다. 참여자가 면접 이후에 설명이나 의견을 추가하고 싶거나 연구자가 추가 질문이 있을 때는 전화나 문자, 또는 이메일을 사용하였다. 전체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9월 한 달 동안이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참여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전체를 음성 녹음하면서 동시에 연구자의 노트북으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면접을 마친 후 모든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전환하였다. 연구자의 현장 기록과 문자로 전환된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덟 개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참여자의 답변에서 유사 의미 단위와 개념으로 분류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내고 이 진술에서 주제를 도출하였다. 또 이 주제들을 주제군으로 묶은 후 다시 범주화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가 3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3. 연구 결과

침례교 찬양인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네 개의 상위범주와 열세 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상위범주 중 처음 두 가지는 찬양 사역 현장의 객관적인 현황이고, 다음 두 가지는 찬양인도자들의 인식과 당면 과제를 살펴보았다.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침례교 찬양인도자의 사역 경험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찬양 사역의 구조	인도자	전공, 담당 사역
	찬양팀	구성원, 전공, 자격 기준
	음향 담당자	전문성, 신앙 여부
찬양 사역의 절차	선곡	시기, 기준, 과정
	연습	과정, 시간, 내용
찬양 인도 경험	회중 찬양에서 찬양의 역할과 영향	예배자, 하나님과 회중을 잇는 통로 인도자는 팀원의 영적, 음악적 지도자
	찬양 인도 중 '진행어'	절제, 찬양의 흐름
	교회음악 전공 여부와 그 영향	음악적 완성도, 편곡 능력, 지도 능력
	성가대와 찬양팀의 협력	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 가능
찬양 사역의 걸림돌	시간과 인력의 부족	영적 양육, 음악적 전문성, 음악 훈련
	설교자와 소통	설교 본문 전달 시기, 지속적인 소통
	음향 담당자의 전문성과 소통	소통, 협력
	사역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	중요성, 역할 인정, 경제적 어려움

1) 찬양 사역의 구조

찬양팀의 사역은 일반적으로 찬양인도자와 함께 찬양 밴드와 싱어,²¹⁾ 그리고 음향 담당자로 이루어진다. (밴드 없이 건반 악기로 반주하는 예도 있다.) 찬양인도자는 영적, 음악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밴드와 싱어는 악기와 목소

21) 본 연구에서 싱어라 함은 찬양인도자와 함께 (주로 마이크를 사용하여) 노래하는 코러스 그룹을 말한다.

리로 회중의 찬양을 돕는다. 클래식 음악과 달리 찬양팀은 악기와 노래가 모두 스피커로 형성되므로 음향 담당자도 중요하다. 찬양팀 구성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인도자

참여자의 전공과 전문성을 살펴보면, 모두 신학을 공부한 사역자이다. 대부분 일반 사역자로 교회에 부임했다가 전임자의 사임 또는 역할 변경으로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다. 즉, 전임자와 참여자 모두 찬양 인도를 전담한 인력은 아니다. 한 참여자만 찬양 인도 전담으로(경배와 찬양 및 예배 기획 담당자 공고에 따라 지원) 부임하였다. 교회음악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역자로 부임하는 현상은 교회가 찬양인도자를 별도로 모집하지 않고 일반 사역자 또는 평신도에게 맡도록 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모든 참여자가 중고등부나 대학 시절 교회나 동아리에서 찬양팀에 소속되었거나 찬양 인도 경험이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찬양인도자가 되기 위해 음악을 전공한 참여자는 세 명이다. 즉, 찬양 사역에 필요한 신학과 음악을 모두 전공한 참여자는 절반 이하인 셈이다. 참여자가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은 대부분 찬양 인도와 더불어 예배 기획과 관련 행정 업무, 그리고 중고등부나 청년부의 부서 사역을 겸하여 맡고 있다.²²⁾

(2) 찬양팀

찬양팀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밴드 5명(신시사이저²³⁾ 2명, 드럼 1명, 전자 기타²⁴⁾ 1명, 베이스 기타 1명)이지만 밴드 없이 피아노와 엘렉톤을 사용하는

22) 찬양 전문 사역자로 부임한 참여자만 타 부서는 맡지 않고 모든 예배와 집회의 찬양 인도 및 찬양팀 관리, 예배 기획 등 찬양에 관련된 모든 일을 전담하고 있다.

23) Synthesizer. 통상 건반, 혹은 신디사이저로 부름. “한국어 어문규범,” https://kornorms.korean.go.kr/m/m_exampleList.do, 검색일: 2023. 9. 20.

교회도 있다. 인도자와 함께 마이크를 사용하여 노래하는 싱어는 4-6명인데 성가대원 전체가 경배와 찬양 시간에 찬양팀과 함께 노래하는 교회도 있다.

찬양팀원 중 악기를 연주하는 밴드 구성원은 전공자인 경우가 절반 이상 있지만 싱어는 대부분 비전공자이다. 찬양팀원은 주로 찬양인도자가 선정하는데 그 선정 기준은 밴드 멤버와 싱어 그룹이 다소 차이가 있다. 밴드 멤버는 연주 실력을 중시하는 반면에 싱어는 노래 실력을 크게 따지지 않고 신앙적인 기준과 열심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노래 실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찬양하는 모습이 은혜로워서’ 영입한 예도 있다.²⁵⁾ 자격 기준은 침례 받은 정회원을 기본으로 하며 적어도 1년 이상 교회 출석, 또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 참석, 특정 성경 공부나 양육 과정 수료, 6개월의 수습 기간 등을 조건으로 한다.

저희 교회에는 젊은 세대 자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노래가 그냥 나쁘지 않으면서 노래와 표정과... 그러니까 노래가 조금 안 돼도 표정이 괜찮은 한 분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모습과 제스처 액션 그게 너무 잘 돼서. (참여자 C)

필수 과정이 두 개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새신자 과정 5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경 공부 12주 과정입니다. 총 17주를 마쳐야지만 자격이 생기는데 그거는 저희가 꼭 지키는 편이에요. 아무리 연주를 잘하거나 실력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 과정은 이수를 하게끔 합니다. (참여자 D)

(3) 음향 담당자

찬양팀은 전자 악기와 마이크에 의존하므로 음향 기기와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 교회의 음향은 해당 분야 종사자나 전공자가

24) Electric Guitar. 통상 일렉트릭 기타 혹은 일렉 기타로 부름.

25)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찬양을 포함한 전체 예배에서 영상미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담당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영입하거나 외주 업체에 맡긴 예도 있다. 비전문가인 교인이 배워서 하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음향 담당자는 모두 개신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다.

2) 찬양 사역의 절차

찬양인도자의 사역은 선곡과 연습의 절차를 거친다. 주일 찬양을 위한 선곡의 시기와 기준, 그리고 과정을 살펴보고 연습은 과정과 시간, 그리고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1) 선곡

① 시기

선곡은 찬양인도자의 몫인데 그 시기는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아침이 가장 많다. 그 이유는 설교 제목과 본문이 목요일에 나오기 때문이다. 담임 목회자의 방침에 따라 찬양곡을 설교 본문과 연관짓지 않고 특정 루틴에 따라 1주일 전이나 화요일 정도에 선곡하는 교회도 있다. 한 달치 설교 본문이 미리 나와 있는 교회도 있으나 참여자가 한 주에 찬양 인도를 담당하는 예배나 집회가 너무 많아 역시 미리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주일 설교 제목이나 본문은 조금 늦게 나와요. 보통 빠르면 목요일이고 보통 금요일 날 나와요. 그러면 목요일에 선곡해서 [찬양팀원에게] 레퍼런스 송품을 다 전달을 해요. (참여자 H)

주일 공예배 경우는 루틴이 거의 정해져 있고요. 설교 말씀이랑 상관없이 [선곡해요. 시기는] 저는 주일 저녁에 해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1주일 전] 주일 저녁이 되면 한 2시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참여자 G)

주일 예배는 목요일 오후에 준비를 해서 금요일 오전에 주일 찬양팀한테 공지를 해요. 이 루틴으로 쭉 계속 돌아가거든요. 한 달 치 설교가 나와 있지만 그냥 매주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인도를 제거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참여자 E)

② 기준

선곡 기준은 대부분 성경 본문과 설교 주제이다. 한 참여자는 설교와 관계 없이 매주 보혈, 임재, 경배의 순서로 선곡하고 또 다른 참여자는 늘 보혈 찬송을 선곡한다고 한다. 이유는 참여자의 사역자로서의 소신이거나 어릴 때부터 성장한 교회에서 받은 영향이라고 한다. 공통점은 모든 참여자가 현대 경배와 찬양곡(이후로는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 칭한다) 외에 찬송을 적어도 한두 곡은 선곡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찬송의 가사와 음악의 깊이 때문에 모든 선곡을 찬송에서만 하는 참여자도 있다. 찬송가는 대부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문가에 의해 가사와 음악이 검증되고 지금까지 존속된 곡들이 데 비하여 CCM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사나 음악적으로 수준이 낮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새로운 곡을 소개할 때는 오래 고민하고 가사와 음악을 반복하여 검토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우리 교회 회중에 게 적절한지를 철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찬송가도 콘티에 무조건 적어도 한 곡씩 제가 넣거든요. 아무도 요구하지는 않았고 저는 사실 찬송가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오는 찬양들이, 지금 나오는 찬양들을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가사들을 봤을 때 이 찬송가를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찬송가로 경배 찬양을 항상 꼭 넣거든요. (참여자 B)

새로운 곡들을 소개하고 싶은 거는 오랫동안 고민해요. 이게 진짜 검증 받은 곡인가,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지역 민족도 이 찬양을 다 하고 있는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신학적인 부분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새

로운 찬양을 도입하면 한 3주는 스트레이트로 하고 한 주 쉬었다가 또 한 주하고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합니다. (참여자 C)

③ 과정

선곡 과정은 기도와 설교 본문 묵상 후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어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동영상 플랫폼을 검색하여 예배의 흐름과 성도들에게 맞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곡한다. 선곡 후 인도자가 노래 양식(Song Form)과 조성까지 정하는 예도 있지만 밴드 마스터 역할을 하는 밴드 멤버에게 맡기거나 함께 상의하여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밴드 마스터가 전공자인 경우 밴드와 싱어를 위한 편곡까지 담당하는 예도 있다. 선곡 과정이 모두 끝나면 악보와 노래 양식, 그리고 음원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데, 공유 전에 설교자와 먼저 소통하기도 한다.

[설교 후 찬양곡이] 매주 설교 말씀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거는 제가 추천을 해서 하시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 생각하신 걸 하시기도 하고. 그 곡을 미리 녹음을 해서 송품이랑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저희 이렇게 갑니다, 해서 담임 목사님도 미리 듣고 오시면 훨씬 더 편하시죠. 목사님이 다이렉트로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원하시는 걸 더 잘 표현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 이 부분에서 뭔가 키업을 하면 더 고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자유롭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때 정말 공감이 되면 받아주시고 수용을 잘해 주세요. (참여자 B)

(2) 연습

① 과정

찬양팀의 연습은 개인 연습과 공동 연습이 있다.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질문이나 설명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공동 연습 전에

개인 연습을 해 오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클래식 음악은 개인이 연주할 악보가 명확히 있지만 찬양팀은 그렇지 않다. CCM은 단순한 멜로디 선율에 코드 기호와 곡의 스타일 정도만 표기되어 있다. 밴드 마스터가 편곡 악보를 그려주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밴드 멤버는 공유된 음원을 듣고 자신의 악기 파트를 모방, 숙지한다. 싱어는 기본적으로 멜로디를 노래하는데 곡이 고조될 때 화음을 넣기도 한다. 이를 위해 찬양인도자가 화음 악보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싱어들이 ‘알아서’ 넣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인도자가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하다. 공동 연습은 먼저 찬양팀과 싱어팀이 나뉘어 연습한 다음 함께 모여 최종 연습을 한다. 어떤 참여자는 최종 리허설을 예배 상황과 똑같이 전체 녹음하여 팀원과 공유하고 설교자에게도 전달하여 피드백을 나눈다. 이렇게 하면 부족한 점을 미리 확인하여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요 시간도 확인할 수 있어 원활한 예배 진행에 도움이 된다.

싱어들의 화성은 알아서 해요. 악보를 그려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화성이 안 맞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냥 하는 거죠. 저는 찬양 인도할 때 인이어²⁶⁾를 양쪽에 다 꽂으면 밴드하고 제 소리만 나오거든요. (참여자 C)

토요일 날 연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녹음을 해요. 마지막 리허설을 안 끊고 그냥 쪽 가져거든요. 진짜 주일 예배처럼. 왜냐하면 시간도 체크해야 되니까. 저희가 15분이거든요, 주일 찬양이. 딱 15분 맞추자 막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맞추려고 해서 녹음을 한 걸 저희 찬양팀 [단체 채팅] 방에 올리죠. 그래서 서로 피드백하고 고칠 부분도 고치고. 담임 목사님한테는 설교 이후에 이어지는 찬양을 항상 녹음해서 보내드리죠. (참여자 B)

26) 인이어 모니터(In-ear monitors)의 줄임말. 주로 생방송을 할 때 순조로운 무대 진행을 위해 사용하는 이어폰 장비.

② 시간

공동 연습 시간은 교회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토요일에 모여서 1시간~2시간 정도의 연습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으나 공동 연습을 거의 하지 않고 주일 예배 전 20분가량의 리허설만 하는 교회도 있다. 10년 이상 경력의 찬양팀이라 그렇게 해도 큰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주중 연습을 하더라도 주일 예배 전에는 모두 15분~30분 정도의 최종 리허설을 한다.

저희는 한 30~40분 찬양을 위해서 연습 시간은 20분이 안 돼요. 뭐랄까요 [엮]매이지 않으니깐 성도들의 그 예배의 순간순간 반응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연습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하세요. 만약에 총연습 시간이 1시간이 있다면 기도가 40분이고 연습은 한 20분만 해라. 그러니까 연습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연습보다는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죠.

보통 교회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인도자가 레퍼런스를 다 생각해놓고 세션 팀과 찬양팀 싱어들한테 공유를 해요. 꼭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냥 본인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와서는 그냥 리허설 정도만 해요. (참여자 G)

③ 내용

연습의 내용은 음악적 연습과 더불어 공통적으로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주중에도 기도 제목을 확인하여 단체 채팅방에서 나누며 중보하고 공동 연습을 위하여 모여서도 기도와 함께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는 예가 많다. 또한 연습 후에는 예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함께 은혜를 나눈다.

3) 찬양 인도 경험

연구참여자의 찬양 인도 경험에 대한 진술을 통하여 사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회중 찬양에서 찬양팀의 역할과 영향, 찬양 인도 중 '진행어', 교회음악 전공 여부와 그 영향, 그리고 성가대와 찬양팀의 협력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1) 회중 찬양에서 찬양팀의 역할과 영향

참여자가 진술하는 회중 찬양에서 찬양인도자와 찬양팀의 역할과 영향은 다음과 같다. 모든 참여자는 찬양팀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야 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찬양팀은 회중과 하나님을 가깝게 이어주는 통로이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어떤 참여자는 요즘 사람에 대한 위로의 찬양이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찬양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회중과 마주 보고 있지만 사람을 상대로 노래하지 않고 인도자와 찬양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찬양인도자는 성도들과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참여자는 인도자가 갖춰야 할 능력으로 영적 민감성, 현장성(회중의 상태를 분별), 그리고 민감성(순발력, 돌발 상황에 대처 능력)을 꼽는다. 그는 이를 위해 녹화된 예배를 매주 모니터링하며 자신과 찬양팀뿐 아니라 특히 성도들에 주목한다고 한다. 인도자는 찬양팀원의 음악적, 영적 양육도 담당하는데, 이를 위하여 리더십의 분산으로 팀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강화한 예도 있다. 자신의 음악적인 역량이 있음에도 음악 편곡이나 구성은 밴드 마스터에게 맡기되 그와 소통하고, 영적인 부분은 찬양팀원 중 한 사람을 선정하여 다른 팀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모임에서 기도와 나눔, 연습 진행을 주관하도록 한다.

영성이 무조건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찬양인도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정말 울리는 핑거리처럼 그냥 음악적으로만 더 뽐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영성으로 민감해야 회중들이 같이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못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회중들이 진심으로 따라서 같이 찬양하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위해서 제가 인도한 걸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잘 대처했는가를 판단을 하려고 많이 제 자신이 점검을 많이 해요. 모니터링은 매일 해요 예배 끝나면 바로 모니터링하고 매번. 그리고 한 번 다시 또 보고 어디에서 내가 잘못 움직였는지 잘못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거든요. (참여자 E)

저는 지금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선곡을 해서 [찬양팀원인] 전도사님한테 넘기면 그 전도사님이 밴드 마스터와 소통을 해서 코드 정리, 편곡, 전주, 간주, 후주를 어떻게 할 건지 다 소통하고 취합해서 악보를 만드는 거죠. 사실 이거를 예전에 제가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찬양인도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모임 할 때 전체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그 전도사예요. 저도 하나의 팀원으로서 거기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을 미리 전도사님과 소통해서 전도사님이 인도하게끔. 그러면 제가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그 전도사를 키우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됴으로써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더 전체적인 어떤 표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찬양인도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의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찬양인도자의 리더십은 더 강화되는. (참여자 C)

(2) 찬양 인도 중 진행어²⁷⁾

찬양 인도를 시작할 때나 중간, 끝에 찬양인도자가 하는 노래가 아닌 말을 일반적으로 ‘멘트’라 부른다. 그러나 이는 정식 외래어나 표준어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행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27) 공중파 방송에서도 공공연히 사용되는 이 ‘멘트’는 그러나 사실 국적 불명의 애매한 표현이다.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김선철에 의하면 ‘멘트’의 뜻은 ‘진행 발언’ 또는 ‘대사’ 정도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에 없는 단어이므로 외래어도 아니요 어떤 단어에서 파생한 것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표현이다. 김선철, “외래어 멘트,” 『한겨레』, 2009.11.10. 강성현, “‘멘트 좀 따봐’… 국적·출처 불명의 ‘멘트,’” 『미디어 오늘』, 2012.10.10.

모든 참여자는 진행어의 절제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찬양인도자는 설교자가 아니므로 성도가 찬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이고 인도자가 성도에게 하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표현이 적절하다. 환영 인사만 하고 가사만 중간중간 불러주거나 가사를 불러주는 것도 방해가 될 수 있어 흐름을 위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제한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진행 개입은 오히려 예배의 흐름과 성도들의 찬양을 방해한다.

지금 인사의 멘트 정도를 준비를 하는 편이고요. 중간에 찬양 사이 사이에는 멘트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중간에 멘트를 해본 적도 꽤 있었는데요 그게 꼭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성도님의 집중을 깰 수도 있고, 나만의 목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그냥 함께 찬양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멘트를 안 하는 편이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그게 어색할 때도 있거든요. 갑자기 빠른 곡 끝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느린 곡으로 가는 게. 그래도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예배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 요즘 느껴요. (참여자 D)

(3) 교회음악 전공 여부와 그 영향

참여자 중 세 사람이 신학과 더불어 음악을 전공하였는데 모두 찬양 사역자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음악 보컬을 전공하였다. 음악 전공의 수업 내용은 화성과 양상블 등 기초적인 음악 이론을 포함하므로 보컬 능력은 물론 편곡이나 찬양팀의 지도능력도 갖출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곡을 경험하고 선곡이나 예배 기획을 위한 교육도 받으므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선곡과 예배의 기획, 그리고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은 찬양팀의 영성과 신앙을 강조하면서도 음악적인 실력과 연습 또한 중요시하고 철저한 준비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참여자 중에서도 팀원의 전문성과 음악 실력 부족으로 인한 수준과 선곡의 한계를 아쉬움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다. 또한, 스스로 음악적 한계를 느껴 개인적으로 보컬 레슨을 받는 경우도 있다.

(4) 성가대와 찬양팀의 협력

찬양팀과 구분하여 클래식 음악의 합창으로 찬양하는 구성원을 부르는 명칭은 교회에 따라 성가대 또는 찬양대로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가대로 통칭한다.²⁸⁾ 성가대와 찬양팀은 주로 다루는 음악의 영역이 클래식과 실용음악이라는 차이가 있고, 사용하는 악기도 밴드와 피아노나 오르간 또는 오케스트라인 점이 다르다. 성가대와 찬양팀의 공조가 거의 없이 별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성가대가 경배와 찬양 시간에 전공자로 구성된 찬양팀과 함께 코러스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오케스트라도 함께 하기도 한다. 오케스트라와 밴드 악기가 어울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편곡과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데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한다. 또한, 성가대와 찬양팀이 마치 클래식과 실용음악의 대립 같은 구도가 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현행이 마음에서 어려움을 준다고 진술한다.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은혜로운 찬양이겠지만 찬양팀의 찬양이 발전되는 가운데 있는 거라서 교회에서 인정해 주시고 또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찬양팀보다는 찬양대나 오케스트라 찬양이 더 고급스러운 음악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F)

28) 성가대라는 명칭이 일본의 잔재이고 성경 또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라 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교회음악 학자이자 대전신학대학교와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문성모는 이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기독교 문화유산의 계승과 교회의 용어 일치를 위해 성가대 용어를 보존할 것을 주장한다. 문성모, “성가대” 용어의 바른 이해, 60 『예배음악 매거진』, 2019. 2. 27.

4) 찬양 사역의 걸림돌

연구참여자의 찬양 인도 사역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있다. 찬양인도자가 진술하는 어려움에는 시간과 인력의 부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흡한 영적 양육과 음악 완성도, 설교자와의 더욱 긴밀한 소통에 대한 아쉬움, 음향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나 소통과 협력의 부재,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에 대한 필요성 등이 있다.

(1) 시간과 인력의 부족

① 영적 양육

참여자는 찬양팀원의 책임감과 예배 사역자로서의 자세, 신앙의 성숙을 아쉬움으로 꼽는다. 찬양팀은 인도자와 함께 예배에서 성도의 찬양을 돕고 스스로 모범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와 예배에 대한 인식 부족은 많은 어려움을 준다. 이를 위해 찬양팀원의 영적인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인도자는 매주 찬양 준비와 다른 사역으로 바빠 시간을 내지 못하고 팀원 역시 각자의 일터와 가정사로 여의치 않다.

지금 현재 찬양팀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예배자로서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훈련, 찬양인도자로서의 소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찬양팀 신앙적인 수준은 그냥 일반 성도의 수준이고, 제가 아쉬운 건 팀원 간의, 예를 들면 목장이나 구역을 하듯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 더 깊숙이 하나 되는 그런 기회들. 그것이 인간적인 교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의 삶을 서로 이해하고 함께 중보기도하고 함께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팀워크, 그것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 팀이 예배 인도를 하면 회중이 느끼는 게 다르고, 우리가 싱어로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참여자 C)

주일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죠. 사실 휴가 같은 건 아무래도 자원봉사고 다들 직장인이고 하다 보니까 휴가들이 거의 어느 정도 겹쳐요. 근데 이제 휴가를 항상 주일을 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비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처음 맡고 나서 찬양팀 우리가 가장 선봉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들 가정이 있으시고 아이들이 어린 상황이 저도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섬기기로 했는데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어서 많이 아쉽죠. (참여자 B)

② 음악적 전문성과 훈련

음악적인 전문성의 부족 역시 찬양 사역의 어려움이다. 밴드에는 전공자인 밴드 마스터가 있어 어느 정도의 악보 제공과 지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함께 앙상블을 이루어 연주하므로 가장 실력이 부족한 연주자의 수준에 맞추어 연주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연습 과정에서 전술했듯이 싱어의 화음 악보를 만들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거의 멜로디 악보만 제공하고 화음은 '원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고 있다. 그러나 싱어들은 거의 음악 전공자가 아니어서 어색하거나 틀린 화음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도자가 리허설 때 듣고 수정해 주기도 하지만 역시 시간이 부족하면 화음을 포기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악을 전공한 참여자일수록 음악적 수준에 대한 아쉬움, 편곡이나 발성 훈련의 필요성을 느낀다. 한 참여자는 매주 예배를 위해 직접 편곡하고 악보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원하는 만큼 편곡을 하지 못한다. 음악 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가지는 교회도 있으나 연 1회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적다. 찬양팀원 선발 기준에 모든 교회가 신앙적인 기준은 있으나 음악적인 자격이나 거쳐야 하는 음악 훈련 기초 과정은 없는 곳이 많다. 한 교회는 주일 예배에 서기 위해서는 17주간의 신앙 교육을 거쳐 6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솔직하게 어떤 면에서 아쉽고 표현이 잘 안 되죠.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연주자가 그냥 취미로 레슨 받아서 하시다 보니까 가끔 실수가 있어요.

[악보논] 최대한 [제가] 다 편곡해서 [단체 채팅방에] 올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오케스트레이션을 다 파트별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참여자 E)

밴드 같은 경우는 메인 건반, 드럼, 베이스 기타, 세컨 건반까지는 전공자들이라서 크게 아쉬울 건 없는 상황이고요. 메인 건반 주자가 제 음색에 맞게끔 코드를 맞춰주시고... 그 분이 밴드 마스터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교육을 만약에 교회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아예 횡수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준다면 찬양팀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배워가는 게 있고 실력도 늘 수 있는데 그런 게 단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런 거 들어봤어” 정도만 되지 실력이 큰 향상은 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여자 F)

[찬양팀에 서기 위해서는] 일단 양육을 들어야 해요. 12주 정도 하고... [또 그다음 5주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끝났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6개월 정도 이제 훈련 과정이 또 있어요. 주일 예배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주중 예배 금요기도회나 수요일 예배나 이런 때 좀 많이 서보고 또 경험하고 이렇게 수습 과정을 통해서 주일 예배에 서게 되는 거죠. (참여자 A)

(2) 설교자와 소통

찬양인도자는 일반적으로 설교의 주제를 고려하여 선곡한다. 한 주 전이나 화요일 또는 한 달치 설교 본문이 미리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에 받게 되어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 설교자와의 소통은 여러 형태인데, 선곡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예배에 대해 이해하고 선곡하는 경우도 있으나 선곡 리스트를 설교자에게 보내어 승인이나 의견만 받는 경우, 그리고 설교 본문 전달 외에는 별도의 소통 없이 찬양인도자가 알아서

선곡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요즘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겠지만 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미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국 목사님들 경우 9월이면 내년 설교 52주를 벌써 플랜을 짜는 기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52주의 설교 제목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내년에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가겠다는 철학이 드러나는 거고 그러면 인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참여자 G)

(3) 음향 담당자의 전문성과 소통

찬양팀의 악기와 노래는 모두 전자적인 장치를 통하여 확장, 전달되기 때문에 음향 담당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음향 담당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기계를 다루는 것 외에도 음악성과 예민한 귀라 할 수 있다. 참여자가 교인이나 전문가인 음향담당자와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음향 담당자가 찬양인도자의 요구사항이나 회중의 민원을 무시하여 소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찬양인도자도 음향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요구사항을 정확히 설명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용어나 음향 지식의 부족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음향 담당자는 예배 시간뿐 아니라 찬양팀의 리허설에도 반드시 참여하여 상호 준비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다. 반대로 회중의 민원으로 음향 담당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 참여자는 ‘교인 중 청년이 배워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일부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간섭하고 비판하여 상처를 받고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이 아쉽다고 한다.

음향 쪽은 기계다 보니까 데시벨 리미트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너무 크다는 성도들의 민원을] 음향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보다 더 정확한 기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음향팀하고는 얘기를 몇 번 해봤는데 사실은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면 어차피 싸움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이크를 제가 좀 떼고(멀리 하고) 부르는 걸로 선택을 했고 무조건 드럼은 릴렉스 시키고 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도자로서 팀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치게 해주고 싶은데 못치게 하는 것 같아서. (참여자 F)

대부분 지금까지 찬양인도자들이 방송 사역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팀 기준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인도자들이 방송 장비라든가 송출 장비라든가 음향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다뤄보거나 책임을 맡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니깐. 방송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참여자 A)

(4) 사역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

예배에서 찬양인도자의 역할과 찬양의 중요성에 대한 담임 목회자의 인식과 인정도 찬양 사역자가 갖는 아쉬움 중 하나이다. 이는 설교자와의 소통과도 일맥상통한다. 찬양은 예배에서 부수적이거나 '준비 찬양'이 아니다.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고 그 자체가 궁극적인 예배이다. 사역자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조심스럽게 언급되었다. 이것은 단지 찬양인도자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사역자의 보수로는 성장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더욱 어려움이 크다. 반면, 찬양 사역 자체가 주는 기쁨과 힘차게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은 찬양인도자에게 큰 위로가 된다. 또한 교인들이 사역자에게 건네는 감사와 격려는 사역의 보람을 느끼게 해 준다.

준비 찬양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지만 한 시간의 예배 안에서 비울로 파졌을 때는 설교 다음으로 가장 큰 게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이미 은혜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

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너무 무시당하는 느낌이고. 이런 예배 인도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예배인도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냥 단순히 찬양을 노래하는 정도로만. 이걸 그냥 떼우기식으로 하는 교역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예배에 대한 고민, 또 찬양 사역에 대한 고민. 찬양과 설교가 한 맥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림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깊이 있는 예배에 대해서,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H)

사례비 [상항이]랑 4대 보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고. 사실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일용직 노가다나 대리운전 다 했던 거예요. (참여자 *)

새 가족 환영회가 있어서 한 가정씩 나와서 다 얘기를 해요. 왜 교회에 등록했는지. 근데 그중에 이유가 정말 가장 많은 게 찬양 때문에.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의 자량이 아니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힘이 되었던 것 같고. (참여자 B)

4. 나가는 말

1) 연구결과 요약

연구참여자 찬양 사역 경험을 찬양 사역의 구조, 찬양 사역의 절차, 찬양 인도 경험, 그리고 찬양 사역의 걸림돌의 네 가지 범주로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찬양 사역의 구조는 찬양인도자, 찬양팀, 그리고 음향 담당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자격은 신앙과 영성, 그리고 음악적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인 찬양인도자는 모두 신학을 공부한 사역자이며 찬양팀과 음향 담당자의 신앙 기준도 상당히 엄격하다. 이에 비해 음악적 전문성은 다소 미흡해 보인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신학을 하기 전부터 찬양 사역에 꿈이 있거나 적어도 관심이 있었던 것에 비하여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연구참여자

가) 음악 훈련을 따로 받거나 필요성 언급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없다. 또한, 찬양팀원 중 밴드 구성원의 악기 연주 실력은 전공자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대하나 싱어의 가창 능력이나 음악적 숙련도는 크게 요구하지 않는 편이며 노래 지도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향 담당자는 전공자거나 해당 분야 종사자이다.

찬양 사역의 절차는 선곡과 연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는 대부분 설교 본문을 선곡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담임 목회자나 자신의 소신으로 설교와 관련 없이 주제를 정하거나 보혈과 같은 특정 주제로 선곡하는 경우도 있다. 선곡은 동영상 플랫폼을 검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습은 예배 전 리허설 외에도 평일에 평균 2시간 정도를 하는데 이때 음악적 연습과 함께 영성 훈련을 병행한다. 찬양팀원은 함께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누고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준비한다. 역시 음악적 숙련도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습이나 악보 제공, 그리고 음악 지도 능력이 절실하다.

찬양 인도 경험은 회중 찬양에서 찬양팀의 역할과 영향, 그리고 찬양 인도 중 진행어, 그리고 교회음악 전공 여부와 영향, 그리고 성가대와 찬양팀의 협력을 탐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찬양인도자, 목양자로서 회중의 상태를 살피고 도와야 하지만 찬양 인도의 개념은 회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고백한다. 찬양 인도에서 사용하는 진행어는 모두가 절제를 철칙으로 한다. 불필요한 진행어나 가사 불러주는 오히려 흐름과 회중의 찬양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경계한다. 교회음악 전공 여부에 따른 음악적 숙련도는 앞서 언급하였다. 성가대가 찬양팀의 일원으로 함께 서서 경배와 찬양에 참여하고 오케스트라도 함께 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클래식과 실용음악의 대립과 같은 구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찬양 사역의 걸림돌로는 시간과 인력의 부족, 음악적 전문성과 훈련, 설교자와 소통,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있다. 찬양인도자는 책임감

과 사명감을 가지고 찬양 인도 사역에 임하고 있다. 그에 비해 찬양팀원의 결석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자세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음악적 훈련과 전문성 역시 찬양 사역의 어려움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회 내에서 찬양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나 훈련 과정을 마련한 교회도 있다.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예배와 찬양 사역을 위해 설교자와의 소통과 협의 그리고 설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음향 담당자와의 역할과 전문성, 그리고 소통도 중요하다. 찬양 인도자는 음향 상태를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음향 담당자는 기꺼이 소통하며 제안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역자에 대한 인정과 경제적인 보상은 찬양인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담임 목회자의 찬양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인정, 소통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등이 부족한 것은 사역에 큰 어려움이다. 성도들의 격려는 사역자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

2) 논의와 제언

구약에서 성전음악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은 성결하였을 뿐 아니라 잘 훈련된 학자이자 선생이었으며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유능한 연주자들이었다(역대상 16:37; 역대하 8:14, 31:2). “숙련된”²⁹⁾이라는 단어도 종종 쓰인다(역대상 25:7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오늘날의 찬양 사역도 이와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찬양인도자는 모두 신학을 전공한 사역자인데 이것은 규모가 중형 이상인 교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중소 교회에서는 평신도가 찬양인도자인 경우도 많은데, 찬양인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신학적, 음악적 역량, 그리고 책임감이다. 구약의 성전 음악 담당자처럼 찬양인도자와 찬양팀원은 성결하고 숙련된 자라야 한다. 기도로 준비하

29) 케네스 W. 오스벡 / 박희봉 옮김, 『그 영원한 노래』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10), 72-3.

고 신학적으로 검증, 선별된 표현을 사용하며 꾸준히 음악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찬양인도자에게 필요한 음악 훈련에는 발성(가창), 화성학, 편곡 등의 음악 이론과 선곡이나 예배 기획을 위한 교회음악 교육이 있다. 특히 찬양팀원의 음악적 전문성과 훈련이 미흡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큰 아쉬움이다. 설교자가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듯이 찬양하는 자는 예배를 위해 영적인 훈련과 더불어 음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찬양을 향한 열정으로 음악적인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더욱 영적이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아름답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찬양 인도자는 발성과 화성 등을 포함하여 찬양팀을 힘써 훈련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이들의 음악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을 고려하면 좋겠다.³⁰⁾

음향 담당자는 최선의 예배 음향을 위하여 겸손하게 준비하며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음향 담당자의 능력은 기계를 만지는 기술만이 아니라 음악을 듣고 판별할 수 있는 ‘좋은 귀’가 필수적이다. 좋은 음향인은 좋은 연주자인 경우가 많다. 음향 담당자는 적어도 다양한 형태의 음악을 듣고 감상하며 귀를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평가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화된 표준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³¹⁾ 그러므로 예배 사역자나 교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좋은 음향을 만드는 것은 결코 기계 자체가 아니다. 기계는 좋은 귀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일 뿐이다. 찬양인도자가 그렇듯이 음향 담당자도 예배자의 마음과 성도를 향한 목회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다.

선곡은 많은 찬양 사역자의 고민이다. 체계와 계획이 없으면 찬양인도자 개인의 취향에 머물게 된다. 설교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예배와 찬양에 대한 철학을 나누고 예배를 위해 협의하며 회중에 대한 배려와 목양이 담긴 선곡은 함께 예배를 기획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다.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

30) 예를 들어, 신앙을 위해 새신자 교육이나 정기적인 성경공부 등을 하듯이, 찬양팀원을 위한 음악적인 훈련 과정(발성, 화성 등)을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1) 이돈웅, 『무대음향』 (서울: 교보문고, 2020), 7.

대 경배와 찬양곡은 가사나 음악의 검증이 부족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잘 분별하고 선별할 수 있는 능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배는 집회와 구분한다.³²⁾ 예배에는 사람을 향한 위로나 신앙고백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엄선된 가사의 찬양이 필요하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단지 고령의 성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배려가 아니라 신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예배와 찬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협력이라 할 수 있다. 담임 목회자, 찬양인도자와 성가대 지휘자를 포함하는 음악 담당자, 그리고 음향 담당자 등의 지속적인 협의는 체계적인 예배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소재한 제일 연합감리교회의 예배담당 목사(Minister of Worship), 린다 맥더모트(Linda McDermott)가 설명한 예배 기획 과정을 참고로 소개한다.

예배담당 목사는 담임목사, 음악 감독(Director), 음악 부감독(Associate director), 오르가니스트, 예배 도우미(Worship assistants)로 구성된 예배 기획팀을 주관한다. 예배 기획팀은 매년 봄 특별 모임(Retreat)을 통해 절기별 주요 예배를 포함한 1년 전체의 예배를 구상한다. 1년의 예배계획이 나오면 담임 목사의 [설교] 계획에 맞추어 교회력의 주요 주일을 위한 주제를 정한다. 특별 모임 이후 대강절과 사순절 등 교회력의 주요 예배를 위한 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각각 4~5회의 연속적인 모임을 한다. 예배를 위한 음악, 시각적 요소, 새로운 아이디어 등 기본적인 것이 결정되면 교회의 모든 스텝을 참여시켜 특별 강좌나 지역 봉사 프로그램 등을 주제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그 후 예배 기획팀은 매주 모여 앞으로 3주간의 예배 내용을 검토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점검한다.³³⁾

32) 김성대, “에토스 이론에 따른 예전(예배) 음악과 CCM,”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5 (2004), 317.

33) Linda McDermott,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Ft Worth, TX, USA에서 연구자에게 보낸 이메일, 2019. 4. 12.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된 성도들이 통일되게 응답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회중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응답의 표현이기도 하다.³⁴⁾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와 바람직한 찬양 사역을 위하여 본 연구가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34) 김성대, “예배의 자리, 회중, 예배음악의 관점에서 바라본 회중 찬송,”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7 (2006), 217.

참고문헌

- 강성수. “예배에서의 찬양인도자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2022.
- 강성현. “‘멘트 좀 따봐’… 국적·출처 불명의 ‘멘트’.” 『미디어 오늘』, 2012. 10.10.
- 갤릭, 프랭크 외 / 홍성수 옮김. 『위험에 처한 교회음악』. 도서출판 두풍, 1997.
- 권지성. “침례교 은퇴목회자의 생활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복음과 실천』 60 (2017), 433-463.
- 김선철. “[외래어] 멘트.” 『한겨레』, 2009.11.10.
- 김성대. “에토스 이론에 따른 예전(예배) 음악과 CCM.”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5 (2004), 305-334.
- _____. “예배의 자리, 회중, 예배음악의 관점에서 바라본 회중찬송.”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7 (2006), 215-242.
- 김에스라. “현대예배와 찬양인도자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음악·문화』 3 (2018), 34-64.
- 김은영. “포스트 코로나19와 교회음악에 관한 연구 - 온라인 예배에서의 회중찬송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4 (2019), 207-230
- 김은희. “한국 신학교육에서 찬송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예배인도자로서 목회자 후보생 찬송 교육을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97 (2021), 143-166.
- 문성모. “‘성가대’ 용어의 바른 이해,” 60 『예배음악 매거진』, 2019. 2. 27.
- 안선희. “종교문화적 취향의 문제로서의 열린예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3 (2007), 309-330.
- 양정식. “현대 찬양경배예배의 이해와 개선점 - 예배찬양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2 (2010), 319-354.
- 오스백, 케네스 W / 박희봉 옮김. 『그 영원한 노래』.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10.

- 이돈용. 『무대음향』. 서울: 교보문고, 2020.
- 이상일. “21세기 한국문화와 회중 찬송.” 『장신논단』 37 (2010), 189-218.
- 이상일. “공적 신앙 형성과 회중찬송.” 『신학과 실천』 58 (2018), 193-221
- 정석찬. 『워십리더』. 서울: 넥서스, 2013.
- 정주영. “교회 속 예배 팀과 예배 인도자의 역할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장신대학교 2018.,
- 크레스웰, 존 W / 조흥식 외 3인 옮김.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2015.
- 하재송.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찬양사역과 워십댄스.” 『개혁논총』 17 (2011), 225-258.
- _____. “찬양과 경배“에 대한 개혁주의 예배학적 조명.” 『개혁논총』 18 (2011), 215-248.
- 황형철. “예배인도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신대학교, 2006.
- “한국어 어문규범.” https://kornorms.korean.go.kr/m/m_exampleList.do.
검색일: 2023. 9. 20.
- McDermott, Linda.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Ft Worth, TX, USA에서 연구자에게 보낸 이메일. 2019. 4. 12.
- Tongco, Dolores C. “Purposive Sampling as a Tool for informant Selection.” *Ethonobotany Research and Applications* 5 (2007), 147-158.

Abstract

A Study on the Worship Leading Experience of a Protestant Church Praise Leader

Eunyoung Kim

This research aims to comprehend the worship leading experiences of baptismal praise leaders. While many churches have praise and worship teams, the challenges, preparation processes, and essential concepts faced by praise leaders are often overlooked. Therefore, this study delves into the worship leading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baptismal praise leaders within the denomination to which the researcher's institution belongs. To achieve this goal,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specifically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ology, is employed.

Methodology: The study involves eight purposively selected baptismal praise leaders from churches with a weekly attendance of over 1,000. The inclusion of church size as a criterion aims to exclude physical constraints and gain a mor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praise leaders' environment without limitations on resources such as personnel and equipment for the worship team. Data collection involves in-depth interviews lasting at least an hour, with additional questions conducted via phone or text after the initial interview.

Results: The worship leading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are explored in four categories. First, the structure of worship ministry comprises praise leaders, worship teams, and sound technicians. Second, the procedures of worship ministry are examined through the song selection and rehearsals. Third, the worship leading experience encompasses the role and influence of worship teams during

congregational singing, examining the language of worship leaders, the impact of music education on worship leading, and collaboration between choir and worship teams. Fourth, obstacles in worship ministry include challenges related to time constraints, personnel shortages, musical expertise and training, communication with preachers, and recognition and reward for ministry efforts.

Discussion and Recommendations: First,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a balance between spiritual standards and musical expertise and training for worship leaders. Musical training should incorporate vocal and harmony lessons for the worship team, and the church should offer both human resources and financial support. Second, sound technicians are encouraged to adopt a humble and communicative approach to achieve optimal worship sound. Their skills should go beyond technical expertise, requiring a discerning “good ear” for music. Third, maintaining continuous communication with preachers for song selection and fostering ongoing collaboration among various ministry roles contribute to systematic worship.

Worship is a human response to God's calling. Congregational singing, as a vital element of worship, serves as the most proactive response to God's calling. This study aspires to lay a valuable foundation for enhancing worship and praise ministry in Korean churches.

Key Words: Church Music, Worship Leading, Experience in Worship Ministry, Church Sound, Worship Team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2023년 10월 15일	20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12월 1일

DOI 10.34303/mscol.2023.31.2.003